

***** 中國圖書館學會『2000年學術年會』참가보고 *****

한중도서관협력의 기초를 놓은 중국방문

이용훈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blackmt@hitel.net)

유난히 무덥던 한여름이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중국도서관학회(협회)의 초청을 받은 우리 협회 대표단 3명(이두영 회장, 이용남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용훈 기획부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우리 협회가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광주 무등관광호텔)에 중국도서관학회 孫蓓欣(Sun Beixin) 부이사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한중 도서관계 상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된 것이다.

이번 방중은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도서관협회(중국에서는 中國圖書館學會가 협회의 역할을 수행)가 중심이 되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사전 협의가 그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와 함께 마침 中國圖書館學會가 개최하는 『2000年學術年會』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과 中國國家圖書館을 비롯하여 몇몇 공공과 대학도서관을 참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중 기간 동안 우리 대표단과 중국도서관학회 관계자들은 양국 도서관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두 협회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양국 도서관계의 발전

을 돕자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9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중국도서관협회 대표를 초청하고 중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중국 도서관계의 주요 지도급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두 나라가 가진 훌륭한 지적자원인 古籍籍과 희귀본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와 도서관의 디지털화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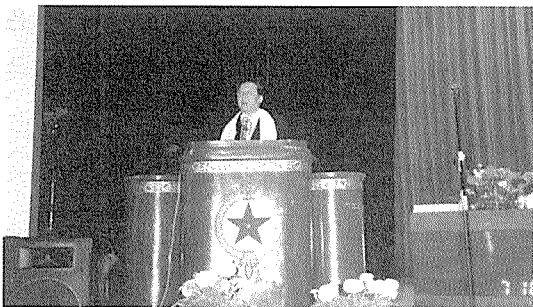


(왼쪽으로부터 필자, 李斗榮 한국도서관협회장, 周和平 중국도서관학회 상무부이사장님, 孫蓓欣중국도서관학회 부이사장, 李庸男 기획위원회 위원장)

우리 대표단은 방중기간 중인 8월 18일 중국 내몽고자치구 海拉爾(Hailar)시에서 열린 '中國

圖書館學會 2000年 學術年會'에 참석하였다. 이 學術年會는 작년 처음 시작한 전국적인 학술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중국 전역에서 약 800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발표, 토론 등을 진행하는 학술행사와 부대행사로 각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리는, 우리 도서관대회와 유사한 행사였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대회장 앞 중심거리에서 시민들이 몽고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춤을 추는 개막행사가 열려 많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환영행사는 중국의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중국 내에서의 문화부(중국에서는 도서관행정이 문화부 소관이다)와 도서관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니 부러운 감이 없지 않았다.

學術年會 개최식은 몽고의 전통적 환영행사(주빈에게 몽고 전통의상을 선물하여 입게 하고 단상의 다른 내빈들에게는 흰색의 천을 둘러주는 것으로 몽골에서는 매우 정중한 손님맞이 행사라고 한다)를 시작으로 하여 문화부 副部長의 치사와 각종 축사가 길게 이어졌다. 여러 축사 중에는 우리 협회장의 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회장은 우리말로 축사를 하였고, 곧이어 중국어로 통역되었다. 축사를 하는 동안 객석은 내내 술렁거렸는데 아마도 역사 이래 중국의 도서관인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축사인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수 천년 양국 역사의 역학 관계를 넘



〈축사를 하고 있는 이두영 한국도서관협회장〉

어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성장한 우리의 역량과 상황에 기쁨과 함께 새로운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 축사였다.

회장의 축사에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사람들의 대표가 축사를 했다. 적지 않은 해외거주 중국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부러웠다. 이어 中國圖書館學會의 常務副理事長의 工作報告(우리 말로는 아마도 연간 활동보고 썬 될 것이다)가 있었다. 다소 긴 느낌의 보고는 그러나 중국어의 강한 액센트와 함께 특유의 의지가 결합하여 강당에 모인 참석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내년에는 四川省에서 모인다는 선언이 있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개회식을 마치고 대회장을 나섰을 때에는 너른 몽골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흰 구름이 선명했다. 잠시 후 대회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사업기술및설비전람회' 개막식과 참관이 있었다. 악단과 전통적 환영의식이 결합된 간략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식의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최지가 중국에서도 북쪽으로 국경에 가까운 곳(북경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 넘게 걸린다)이라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중국의 박람회도 대체로 전산화 장비와 기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몇 몇 출판사도 참가하고 있어 新舊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방중기간 동안 中國國家圖書館을 비롯, 北京大學校와 清華大學校 도서관, 學術年會가 열린 海拉爾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呼倫貝爾盟圖書館, 북경시 西城區圖書館을 견학하였다. 국가도서관은 그 규모나 장서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의 도서관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었다. 北京大와 清華大의 도서관은 우리 대학도서관과 별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역시 인터넷 등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새로 지은 北京大學校 도서관은 매우 현대적이고 규모도 상당했다. 다소 우리와 다른 점은 일반열람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북도에 조금 마련되었을 뿐이다)이다. 또한 일부 실에서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복무태도나 지향점을 게시해 두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 중심(중국식으로 말하자면 人民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지방 공공도서관인 呼倫貝爾盟圖書館은盟(몇 개의 시를 묶은 省아래의 행정단위)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나 역시 지방의 도서관인지라 규모나 장서내용이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 도서관에서도 컴퓨터실은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또한 몽고어로 쓰여진 문헌과 盟에 속한 지역의 모든 행정자료를 모아두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도서관 입구에 ‘三級圖書館’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있어 내용을 물어보니 얼마전 문화부가 전국의 도서관을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에서 3급에 오른 것이라고 한다. 級을 받지 못한 도서관도 많다고 하니 겉보기보다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짧은 방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북경시에서 방문한 西城區圖書館은 새롭게 건립된 도서관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장서나 인터넷실 등 최신의 내용성을 갖추고 있었다. 사서인 관장은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 대표단에게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다. 여행

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여행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계단에 전시장을 마련해 두고 직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각오를 적은 종이나 도서관이 사용해 온 장서인을 한 곳에 모아 액자에 넣어 게시하고 있는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직원들의 자부심과 애정, 시민들의 사랑이 가득한 도서관이었다.

여러 관종의 도서관을 둘러본 결과 중국의 도서관들은 시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공공도서관까지도 정기간행물을 상당수 소장하고 이용시키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열람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과 함께 우리 도서관 운영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번 중국방문은 두 나라 도서관협회의 협력기틀을 마련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충실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덧붙여 중국의 도서관을 직접 보고 중국의 도서관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 향후 우리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상당한 양과 수준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서관간 협력과 자원공유에 이르게 된다면 두 나라 도서관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세계 도서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방중을 통해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협력의 기초는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리 도서관대회에 중국도서관학회 대표단의 참석은 이러한 기초를 더욱 강화하고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